

저자 (Authors)	권영오
출처 (Source)	신라문화 55 , 2020.2, 229-235 (7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5 , 2020.2, 229-235 (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11599
APA Style	권영오 (2020). 국왕과 정치사로 신라 하대를 재구성하다 (김창경,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신라문화, 55, 229-23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0/07/26 09: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평

국왕과 정치사로 신라 하대를 재구성하다

(김창겸,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권영오_대저중학교 교사

I. 국왕과 정치사의 관점으로 바라 본 신라 하대

전제정치뿐 아니라 신라의 삼국통일론까지, 최근에도 토론이 활발한 신라 중대와 달리 신라 하대의 정치사는 오랫동안 한국고대사학계에서 큰 논쟁이 없는 분야였다. 그것은 1958년 이기백이 발표한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에서 언급한 신라의 정치형태, 곧 상대(중고)의 귀족연합에서 중대의 전제정치, 하대의 귀족연립으로 이행했다는 이해가¹⁾ 통설로 자리 잡은 후, 이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 하대 정치사는 여전히 해명해야 할 부분과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주제가 남아 있다. 기존 연구의 정체성(停滯性)을 극복하고 넓어진 시각과 심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신라 하대의 정치를 심도 있게 투시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서평자에게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는 무척 기대가 되는 책이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왕위계승의 중요성을 “군주국가에서 국왕은 권력과 사회구성의 정점에 해당하는 까닭에 왕위의 계승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왕위의 계승은 왕조의 수성이요 연속이며, 왕위의 단절은 곧 왕조의 멸망인 것이다”(본서 p.119)고 지적하였다. 이기동의 견해를 빌린다면 신라하대 정치의 특징은 왕실친족집단원(王室親族集團員)에 의한 권력 장악과 권력 집중에서²⁾ 찾을 수 있다. 즉 왕과 태자를 정

1) 이기백, 『신라 해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사회과학』 2, 1958.

2)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1980.

점으로 하여 극히 좁은 범위의 근친 왕족들이 상대등, 병부령, 재상, 시중 등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 하대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 하대 국왕들의 가계(家系)와 그들과 전왕과의 혈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저자는 신라 하대 20명의 국왕에 대한 가계의 분석과 왕위계승 사례를 검토하여 『신라하대 왕위계승 연구』(경인문화사, 2003)라는 책을 내었다. 이번 저서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에서는 앞의 저서보다 외연을 넓힌 주제 선택과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서술을 결부시켰다. 그리고 하대 왕계에 대한 정치한 실증작업과 더불어 하대 사회를 보는 정치사적 안목을 녹여 낸 12편의 논문들로 이 책을 채웠다.

이 책은 제1부 원성왕계와 제2부 경문왕계 국왕들의 정치사를 시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제3부의 신라 하대 정치사 이해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논문 발표 시기가 1988년부터(제6장) 2017년까지(제1장) 저자의 30년 연구 결실이 오롯이 축적된 것으로, 앞뒤의 논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부연설명과 사례를 보강하면서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책의 간행사에서 저자는 12장 각장의 논지와 결론을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충실한 내용 정리는 학술서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저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뿐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II.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에 확대된 시각과 심화된 인식을 제시하다

저서는 하대의 시작인 선덕왕에서부터 非진골왕의 즉위까지, 저자의 주된 연구 분야인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관련 논문들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한권의 연구서로 출간한 것이다. 책은 모두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술의 동선을 따라 각 장의 논지를 살펴보자.

제1장 『선덕왕 즉위에 대한 재검토』는 하대의 첫 왕이자 상대등에서 왕위에 오른 첫 인물로 주목받은 선덕왕 김양상의 즉위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선덕왕의 모계와 처계의 분석을 통해 그의 즉위가 찬탈이 아니라 국정의 임시 관리자로 추대되었다고 밝혔다. 논문은 저자의 신라 하대 왕실 가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선덕왕 즉위 과정의 전모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선덕왕 김양상을 친혜공왕파로, 그의 즉위를 추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서평자는 김경신(원성왕)이 혜공왕을 살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김경신의 추

대를 받아 선덕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선덕왕은 찬탈자의 편에 섰다고 보고 있다. 혜공왕 살해 주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선덕왕의 즉위 형태뿐 아니라 중대에서 하대로의 이행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달라진다.

선덕왕이 중대와 하대의 과도기적 성격이었다면, 원성왕은 하대의 ‘실질적 개창자’라는 평가가 따라 다닌다. 그만큼 원성왕대의 정치는 하대 정치 형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2장 「원성왕의 선대와 배경」에서는 중대시기 원성왕의 가계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성왕의 혈연적 배경과 정치적 활동을 제시하여 그의 가문이 당시 신라 진골 귀족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찮았음을 밝혔다.

제3장 「원성왕의 즉위와 김주원계의 동향」에서는 원성왕이 김주원을 명주군왕으로 봉하여 독자적 지배를 허락하였으며, 명주군왕의 지위는 김주원의 적장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졌다고 하였다. 이것은 4장의 원성왕계 국왕들이 황제적 지위와 의식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인식의 폭이 확대된다. 다만 주된 논거로 삼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강릉도호부 인물조에 대한 사료적 한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제4장 「원성왕계 왕의 황제·황족적 지위」에서 저자는 원성왕계 왕과 그 친족이 황제·황족의 지위와 의식을 가져, 마침내는 진골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배경과 목적으로 저자는 중대에는 진골귀족에 불과한 가계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즉위한 원성왕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에서 취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본서 p.114). 저자의 주장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학계가 주목한 논문 중 하나였다.

저자는 신라 하대가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전이 극심하여 왕위계승 원칙이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흥덕왕 사후 벌어진 왕위계승 분쟁은 신무왕의 즉위로 종식되었으며 경문왕계 왕들의 왕위계승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제5장 「헌안왕의 즉위와 치적」은 그러한 이행과정의 연결선상에 있던 헌안왕을 조명한 것이다. 헌안왕은 신라 하대의 정치적 혼란에서 경문왕가에 의한 평화와 안정으로 가는, 즉 신라 김씨 왕통을 연장시킨 충실한 가교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저자의 초기 연구(본서 6장)에서는 헌안왕의 즉위에 대해 당시 정치적 관계를 강조한 윤병희의 견해를³⁾ 인용하였다. 그런데 본서 제5장에서는 “정치적 관계와 아울러 혈연적 관계 및 골품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본서 p.139 각주 42)라고 하여, 논지의 변화가 보인다.

3) 윤병희, 「신라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김양」, 『역사학보』 96, 1982.

제6장에서 저자는 ‘수조역사(修造役事)’라는 당대의 용어를 차용하여 경문왕대 토목 공사의 정치사적 의미를 밝혔다. 저자의 비교적 초기 논문에 속하는 이 글에서는 수조역사의 사례를 왕권강화라는 측면과 연관지우면서 그 한계점도 지적하여, 경문왕대 정치사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입문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효공왕 생모의 신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제7장 『헌강왕과 의명왕후 그리고 야합과 효공왕』에서 저자는 효공왕 생모와 효공왕이 진골 출신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신라의 왕위계승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골품제의 기준에 대한 논의의 연장으로, 실로 하대 정치사 연구에 있어 폭발력이 큰 주제이다. 대개 이런 제목은 논문심사에서 학술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우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저자의 유연한 모습이 그려진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만큼 앞의 논의는 제8장 『효공왕의 즉위와 비진골왕의 왕위계승』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효공왕의 즉위를 계기로 신라 왕위계승 상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골품제상의 신분이 진골이라야 한다는 규정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뒤이은 박씨 왕과 경순왕도 진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단계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은 처음 『사학연구』 58·59합(1999)에 게재되었다가, 저자의 앞의 저서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에 약간의 내용 첨삭을 거쳐 수록되었다. 저자 주장의 반론에⁴⁾ 대해 앞의 7장과 연계하여 자신의 견해를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겸이 헌강왕의 딸(의성왕후)을 자신의 아들인 경휘와 혼인시킨 시점을 예겸의 시중 재임기(헌강왕 1년~6년)로 보는 것(본서 p.231)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헌강왕은 그의 부모 경문왕과 영화부인이 860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875년에 즉위할 때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불과했다. 때문에 예겸의 시중 재위 당시 헌강왕의 딸이 혼인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9장 『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에서는 원성왕과 경문왕은 강한 전체적 왕권을 행사하여 황제적 위상을 추구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저자 논지를 부연 설명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가 중고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⁵⁾ 이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중대에서도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를 언급한 연구도 있다.⁶⁾

4) 이문기, 『신라 효공왕(요)의 태자책봉과 왕위계승』, 『역사교육논집』 39, 2007; 이문기, 『신라 효공왕(요)의 출생과 왕실의 인지 시기에 대하여』, 『신라문화』 30, 2007.

5)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저자가 9장의 결론으로 “신라 하대 전시기는 물론 심지어 전기조차 귀족연립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본서 p.277)”라고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서평자도 이에 동의하지만, 저자의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지고 새로운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좀 더 논의의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기백이 상대등은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능히 실력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⁷⁾라고 한 이후, 신라 하대를 귀족들의 무력에 의한 왕위계승 분쟁의 시기로 파악하고 그 중심에 상대등을 둔 견해가 한동안 학계의 통설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제10장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에서 저자는 이기백의 고전적 학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저자는 이미 왕계의 분석과 왕위계승 연구⁸⁾ 통해 이를 논박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도 “상대등은 정당한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에 가끔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이것은 친족관계에 의한 것이지 결코 상대등직에 왕위계승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앞의 논문들과 더불어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에 큰 반향을 준 논문이었다.

중대에는 태종무열왕과 더불어 二聖으로 추송되던 김유신의 후손들이 하대에 들어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그 위상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제11장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과 신김씨』에서 저자는 ‘신김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무열왕계와 동족의식을 갖고 있던 김유신계가 흥무대왕계로 구분되고 이들이 신김씨를 별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김씨의 출현과 그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저자는 신김씨의 별칭이 김유신 후손들이 신라 전통 김씨와 차별되고 그 위상이 낮아진 것과 관련시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연구자들의 기념논총 간행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원로 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회고담을 듣는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경험담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역사관과 방법론적 고민을 이해하고, 연구 성과를 비판 계승하면서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모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학술지에서 그 역할은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연구 논문의 양적 증가와 전공 분야의 질적 심화로 인해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각 시대별 전문 분과의 학회들이 좀 더 세분된 시기와 분야에 대해 연구 성과를 진단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6)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 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7) 이기백, 『상대등고』, 『역사학보』 19, 1962.

8) 김창겸, 『신라하대 왕위계승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창겸, 『신라 하대 왕위찬탈형 반역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7, 1994.

제12장 『경문왕 연구의 현황과 제안』은 다른 주제에 비해 비교적 활발했던 경문왕대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우리 학계에서도 학위논문에서만만이 아니라 학술지에서도 이런 글들이 늘어나 신라 하대 정치사연구의 외연확대와 연구 방법론의 전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Ⅲ.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가 제시한 연구의 전망과 과제

천년왕국 신라가 멸망한 후 천년이 넘는 시간이 다시 흘렀다. 화석화된 왕조의 유해를 넘어 한국사에서 신라는, 신라사에서 신라 하대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가? 신라 하대의 역사적 과제를 꿰뚫어 보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통일신라와 후삼국, 고려에서 군주의 위상과 정치사의 발전을 계기적으로 이해하라고 하였다. 저자의 결론처럼 신라 하대는 신라 말과 동일시되거나 고려 초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혼란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존재 의미를 가지고 한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30년 동안 저자가 일구어 놓은 학문적 성과가 집약된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는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 후속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연구 방법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기존의 조명받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고, 하대 정치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연구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저자가 발굴한 신라 국왕들의 황제적 지위나 황족의식의 예는 산발적이고 다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와 혼용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당시의 정국운영 원리로 작용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스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라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당 뿐만 아니라 일본, 발해까지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때 자신의 연호를 포기했다. 우리 역사의 내부적으로도 신라를 부정한 김헌창과 후삼국의 태봉과 후백제도 내세운 연호를 신라는 그 왕조가 끝날 때까지도 다시 공포하지 않았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신라 국왕들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하일식은 1990년대 이후 학계의 논쟁을 거치면서 신라 중대의 정치사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대 전제왕권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희박해졌다고 하였

다.)⁹⁾ 그렇지만 신라 하대의 정치사 연구는 여전히 기존 인식의 거푸집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신라 하대의 정치 형태를 귀족연립정치라고 단순하게 이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신라 하대에는 진골귀족 간에 왕위쟁탈전이 극심하여 왕위계승 원칙이 없었다는 기존 연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라 하대의 정치를 ‘귀족연립’이라 한 것에 따르지 않고 다른 해석의 틀을 짜야 한다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평자도 신라 하대 155년 간의 정치 사회 모습을 왕위쟁탈전이나 귀족연립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신라 하대 시기 정치적 사건들의 사례 연구들을 귀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론과 이론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신라 하대 시기를 관류하는 정치 운영 원리를 찾는 후속 연구자들의 논쟁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사료의 부족에 허덕이는 한국고대사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고대한다. 서평자도 고신라비의 출현으로 고무되었던 ‘10년 주기설’의 신봉자이다. 그러나 신라 하대의 새로운 금석문은 아직 우리에게 돌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라 하대 정치사 연구가 이만큼의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은 저자처럼 ‘盈科而後進’했던 연구자들이 쌓아 올린 공적이다.

신라사 연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분류사 연구보다도 정치사 연구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한 주장도 있었다.¹⁰⁾ 이 책은 정치사의 구체적 사례를 행간에 밀도있게 녹여내어 신라 하대 사회의 정치적 배경과 사회 구조의 다양한 모습을 짚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의 이번 저서는 단순한 정치사의 대립과 갈등의 관점을 넘어 신라 하대를 역사적 전환기로 조망하고 군주의 위상과 정치사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편의 논문을 통해 신라 하대의 다양한 층위를 모두 겨안을 수는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럴 경우 저자의 또 다른 저서, 『신라의 바다』(문헌, 2018)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9) 하일식, 『중고기 연구』, 『신라사 총론』,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2016.

10) 김수태, 『신라사에서의 전체정치론과 왕권』, 『역사와 담론』 85, 2018.